

■ ■ ■ 행시 합격기  
[제55회 행시 법무행정직 합격]

## 꾸준히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박 정 철

- 1986년 생
- 대구 대륜고등학교 졸업
- 경북대학교 법대 재학중
- 제55회 행시 법무행정직 합격

### I. 들어가며

합격수기 의뢰를 받고 내가 과연 이런 글을 적을 수 있을 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수험기간 동안 많은 합격수기를 읽었지만 저 자신이 그런 합격수기를 적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운이 좋아 합격했다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공부하면서 읽은 수기들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공부방법 등에 도움을 받았기에 제가 적는 글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수기를 적게 되었습니다.

### II. 수험생활과 공부방법

#### 1. 수험생활

(1) 2009년 12월~2010년 2월

2009년 12월 학교 기말고사가 끝나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PSAT도 이 시기에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PSAT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가장 취약한 자료해석 부분을 중점으로 PSAT공부를 하면서, 2차과목인 민사소송법의 강의를 테이프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속칭 PSAT형 인간이라는 생각을 함에 따라 PSAT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고 그 결과 2010년 2월에 치른 1차시험에서 생각보다 저조한 성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2) 2010년 3월~2011년 2월

1차시험 가채점 결과 기대했던 점수는 아니었지만, 혹시나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1차발표날 까지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차발표

후 예상된 결과였지만 불합격을 하게 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PSAT과 2차 과목들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중 월요일 ~ 토요일 아침 7시 30분에서 저녁10시까지 학교도서관에 있고, 스태프위로 하루 열시간에서 열한 시간 정도를 채우는 것을 목표로 공부했었습니다. 집과 학교가 대구에 있는 까닭에 신림동에서 실감을 듣지 않고 수업 테이프 혹은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가 정한 목표를 나름 착실하게 지켜나가 2차과목의 강의를 한번 씩 들을 수 있었고, 제가 정한 기본서들을 몇회독씩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PSAT에 대한 공부시간을 늘리고 2010년 10월경 부터는 하루에 일정량을 항상 풀어 그 감을 1차시험까지 이어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차시험 후 합격안정권의 성적을 얻게 되어 공부장소를 신림동으로 옮겨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 (3) 2011년 3월~2011년 11월

PSAT성적이 안정적이었기에 1차 발표에 맘 졸이지 않고 2차과목들을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동안 처음으로 실감을 듣게 되었고 답안작성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답안작성을 게을리 하여 수업시간에 하는 답안작성을 실천처럼 쓰려고 노력하였고, 동영상강의를 듣는 과목들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50점의 답안을 작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신림동 고시촌에 있으면서 생활리듬이 전과 달라져 아침시간을 활용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

에 일정한 시간에 독서실에 나가 공부하기 보다는 실 공부시간이 열한시간 이상인 것을 목표로 하루하루 생활하였던 것 같습니다.

신림동에서의 생활이 4개월 정도 지난 뒤 2차시험을 응시하게 되었고, 2차시험이 끝난 직후 당연히 불합격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바로 대구로 돌아와 복학을 하게되었습니다. 복학 후 2012년 시험을 위하여 한국사검정시험을 치렀고 2차과목을 조금씩 보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사실 이때까지 시간낭비한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많이 했었고, 공부를 그만두고 취업을 할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할 무렵 2차발표가 나게 되었고 뜻밖의 합격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바로 3차 면접을 준비하게 되었고 2011년 11월 최종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 2. 공부방법

### (1) PSAT

PSAT에 관해선 제가 적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따로 강의를 듣거나 공부시간을 남들 보다 많이 가져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몇가지 부분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출문제풀이를 중심으로 하되 1차시험에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나올지 모르기에 다른 문제집들의 문제들도 많이 접해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실 기출문제보다 모의고사 문제들이 극도로 복잡하거나 무언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긴 하였으나 이런 문제

들을 접한다면 실제 시험에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의 문제집의 경우에도 풀이가 다른 경우가 있기에 하나만 푸는 것보다 여러 출판사의 책을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PSAT공부를 한 번에 몰아서 하기 보다는 조금씩 꾸준히 공부하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1차시험을 한번 불합격 한 후 1차준비를 9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 30분씩 시간을 내어 각 과목 문제들을 5문제씩 매일 풀어나갔습니다. 2010년 12월이 되어서는 매일 20문제씩 시간을 제어하면서 풀었고, 그 중 틀린 문제만을 풀이를 보며 다시 한 번 푸는 형식으로 임하였습니다. 실제 시험이 2주정도 남았을 때에는 2차공부를 모두 중단하고, 매일 실제시험과 같이 각 과목 40문제를 풀고 틀린 것을 풀이하는 형태로 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시험에서 40문제 중 30문제만 맞춘다고 생각하고 임하였습니다. 범무행정 직렬의 평균합격성적이 70점대 초반이었기에 30문제를 맞추어 75점을 맞는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략과목이었던 언어논리를 제외한 자료해석과 상황판단에서는 실제 시험장에서 막히는 문제가 있다면 고민하지 않고 넘겨버렸고, 40번 문제까지 다 푼후 다시돌아와서 고민하는 형태로 시험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0년의 경우 상황판단의 퀴즈문제 하나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여 저조한 성적을 받았지만, 2011년 자료해석과 상황판단 영역에서는 나름 만족

스러운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2) 2차 공부방법

기본적으로 모든 과목의 강의를 두 번씩 수강하였습니다. 소수직렬에 지원을 하여 학원순환강의를 따라가기 힘들어제가 필요한 강의를 골라 듣기도 하였고 3순환만 실강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강의를 듣지 않는 기간에는 교과서를 최대한 빨리, 많이 본다는 생각으로 하루 400P정도의 목표를 두고 공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른 수험자들보다는 어느 정도 많은 회독을 할 수 있었고 이것이 합격의 한 요인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차를 치른 후에는 하루에 50점 답안을 빠지지 않고 작성한 것이 실제 시험장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1) 행정법

행정법을 공부하면서 한 번에 모든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기 보다는 많은 반복을 통하여 내용들을 이해하고 중요한 개념들의 정의나 판례들을 암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실제 공부하면서 강의를 듣지 않는 기간 동안 이를 안에 박균성 교수님의 행정법 강의 교과서를 1회독 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어느정도 목표를 지킬 수 있어서 행정법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강사님의 사례집에서 몇몇 중요하다고 하는 사례들을 골라서 보고 목차를 잡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수강한 강의는 김정일 강사님이 박균성 교수님의 기본서로 하는 예비순환을 테이프도 들었고, 후에 3순환 기간에 실강을 들었습니다. 실강을 듣는 기간에 매일치는 모의고사는 실제 2차시험장에

들어간 것처럼 입혔고, 전혀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책을 절대 보지 않고 답안을 채워나가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 2) 민법

민법은 이태섭 강사님의 사법시험 1차강의를 테이프로 수강하였고, 후에 김남훈 변호사님의 민법교안 이론강의를 동영상강의로 들었습니다. 민법을 공부할 때는 작은 학설 대립까지 다 외우려고 하기 보다는 중요성이 큰 학설 대립을 그 주장과 근거를 철저히 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설대립이 있는 부분의 판례들을 중요한 문구는 그대로 외우고 특히 최신판례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 3)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므로 다른 법률과는 달라 이해하기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또한 다른 과목들은 학교 수업시간에 한번 씩 접해본 것들이었지만 민사소송법은 공부를 시작하면서 처음 접한 과목이라 더욱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면서 다른 법률보다 조문이 더욱 중요한 과목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어떤 강의를 듣거나 혼자 공부할 때에도 항상 법전을 옆에 두고 해당하는 조문을 상세히 찾아가며 공부하였습니다.

수강한 강의로는 이종훈 강사님의 사법고시 1순환강의와 이창한 강사님의 사법고시 동차반 강의를 동영상 강의로 들었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수강할 때에는 모의고사를 항상 시간을 맞추어 풀고, 최고답안과 비교하면서 어느 부분이 잘못 되었는지 어떤 형식으로 적어야 하는

지 검토하였습니다.

## 4) 행정학

법무행정 직렬의 지원자들은 대개 사법고시와 병행하고 있어 행정학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법무행정 시험만을 응시하였기에 행정학도 다른 과목들과 마찬가지로 시간을 배분하여 공부하였습니다. 박경효 교수님의 예비순환을 동영상 강의로 수강하였고, 후에 3순환 실강을 들었습니다. 예비순환을 수강할 때는 한국행정학 교과서를 많이 읽어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고, 후에 3순환 시기에 재미있는 행정학 교재로 공부하면서 중요한 몇가지 제도들의 장단점 등을 키워드 위주로 외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행정학은 서브를 만드는 경우가 많지만, 서브를 만들 노력으로 한번 더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재미있는 행정학에 자료들을 붙여 단권화를 하였습니다.

답안을 작성할 때는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을 답안에 적기 보다는 행정학 전반의 내용을 나타낼 수 있게 노력하였고,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게 답안에 쓸 수 있는 사례들을 찾아 정리하였습니다.

## 5) 노동법

선택과목으로 노동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사법고시와 병행한다면 상법을 하는 것이 맞겠지만 법무행정 직렬만을 지원하였고 상법보다 상대적으로 공부해야할 양이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박기표 강사님의 강의를 동영상 강의로 2번 들었습니다. 임종률 교수님의 교과서를 기본으로 강사분의 사례집을 보았습니다.

답안을 작성할 때 사례에서 문제되는

부분의 법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개선방안 등을 덧붙여 적을 수 있도록 하였고 실제 시험에서도 이를 기술한 것이 만족할 만한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요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 (3) 3차 준비방법

2차시험 합격자 발표 후 행사사랑 카페에서 법무행정 직렬 2차 합격자들만 면접스터디를 구성하였습니다. 소수직렬이다 보니 2차합격자들이 거의 모여 면접스터디를 구성하였고, 이 중에서 불합격자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부담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한다면 모두 붙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도와가며 집단토론, 개별 PT와 면접 준비를 하였습니다.

면접을 준비 할 때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이슈들에 대하여 저의 생각을 정리하고, 서울신문의 사설을 통해 최근 정책들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 III. 나가며

수험기간 내내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시고 아들의 합격을 위해 항상 기도해주신 어머니, 공부하는 동생을 위해 격려

를 아끼지 않았던 형님께 감사드립니다.

수험기간 내내 응원해준 친구들과 친척분들, 면접 준비를 함께하며 많이 도와주신 법무행정 면접 스터디 형님 누님들께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수험생활에 가장 힘든 점은 내가 과연 이 시험을 합격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인 것 같습니다. 짧은 수험생활이었지만 저도 그러한 불안감을 느끼고 어차피 안 될 시험인데 시간낭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또래 친구들에 비해 처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불안감속에서도 꾸준히 제 속도대로, 제 생각대로 공부해 나간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계신 수험생 분들도 그러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불안감속에서 꾸준히 노력한다면 분명 모두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운이 좋아 다른 분들보다 적은 노력과 부족한 능력으로 합격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일하겠습니다.